

■ 6·2 지방선거 이후 호남정치의 길을 묻다

박 주 선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남구 보궐선거 벌써부터 ‘후끈’

정기남씨 첫 예비후보 등록 등 10여명 움직임 본격화

“민심 회초리 당연… 세력교체로 소통 강화”

6·2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과 경고를, 민주당에게는 다시 한 번 수권정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각한 정치적 무기력증을 보여왔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차기 전당 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직에 도전하고 나서는 등 급속히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광주일보 보는 8일 민주당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효석 전남도당위원장을 만나 정치적 비전과 당권 도전 구상,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진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주도세력 교체를 통해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당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훼손되거나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권 도전과 관련, 당내외의 권유가 계속되고 있으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당권 도전의 명분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2012년 재집권을 위해서는 주도세력 교체와 새로운 정치 담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과거 10년을 뛰어 넘는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하고 싶다.

-당권 도전의 명분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2012년 재집권을 위해서는 주도세력 교체와 새로운 정치 담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과거 10년을 뛰어 넘는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회가 된다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하고 싶다.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은.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통해 민주당을 ‘국민의 희망이 모이는 진정한 민주당’으로 만들고 싶다.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수많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나의 정치 행로를 보면 역경지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또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원간의 진정한 융합,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공당화를 통해 민주당을 대안정당 및 수권정당으로 혁신시켜 나가겠다.

반성 통해 정통성·정체성 복원해야

인물론으로 호남 한계 정면 돌파할 것

-당권과 대권 분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당 운영에 사심이 개입될 수 있다. 여기에 당내 분란도 커질 것이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와 순수집단지도체제를 놓고 논란이 있다.

▲당 대표에게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순수집단지도체제가 도입돼야 한다. 순수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된다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최소화되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다.

-차기 대권과 관련, 호남의 한계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민주당은 호남당’이라며 스스로 자화하는 모습과 같다. 호남이 없었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은 불가능했다. 호남의 한계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공학적 자화이다. 문제는 인물이며 능력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호남의 지역적 한계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 ‘민주당 후보 지지’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즉,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거대 여권에 대한 심판의 측면이 강하며, 순수하게 민주당의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거대 여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머물고 있는’ 민심을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역 민심은 싸늘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의 기대에 미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리 아닌

거대 여당의 오만·독선에 대한 심판

치지 못했다. 2년 연속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를 막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시민이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시민권 침해심원제를 밀어붙이는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민심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지역 민심의 회초리를 맞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보다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민주당이 호남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대교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세대교체를 거론하기는 이르다. 현재의 민주당에서는 ‘세대교체’보다는 ‘세력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 세력이 당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외연확대와 함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여당에서 소수야당으로 처지가 바뀌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 민주당과 열린당으로 분열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가 분산된 점도 있다. 이제

라도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과감한 문제 제기를 통해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지역 정치권의 미래를 준비하고 견인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18대 국회 상반기 민주당 지도부는 거대 여권과의 투쟁 일변도로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거대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전략 부재의 양상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만큼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우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과 변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 ‘원칙과 정도’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대충 대충 넘어가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된다. 이와 함께 과감한 외연확대가 필요하다. 특정 계파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자세로 생활정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생 입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민심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 나오토 일본 신임총리가 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간 총리는 일본을 ‘더욱 활기찬’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日 간 나오토 내각 공식 출범

11일 의회 연설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8일 정식 출범했다. 간 신임 총리는 8일 오후 내각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오후 5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간 총리는 오후 6시30분께 아키히토(明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94대, 61명째 총리로서 국민신당과의 연립정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의회 소신 표명 연설은 11일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간 신임 총리는 7일까지 내각 핵심인 관방장관에 센고쿠 요시토(仙谷由

人) 국가전략상을 내정하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 부대신을 재무상으로 승격 시키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인선을 끝내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상과 가메이 시즈카(亀井靜香) 금융상 등 각료 11명을 유임시키고, 아라이 사토시(荒井聰) 국가전략상이 소비자담당상을 겸임하게 할 예정이다.

마지막까지 인선에 난항을 겪었던 농업수 산상에는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전 간사장과 가까운 야마다 마사히코(山田正彦) 부대신을 승격시켜 당내 오자와 그룹을 배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제4회
신안

2010
SHINAN HARVEST FISH FESTIVAL

벵에 축제

2010년 6월 12일 ~ 13일 • 신안군 지도읍 송도위판장

주최 • 주관 : 신안벵어축제 추진위원회